



게임کم 하이 리워드

줄지에 빛더미에 앉은 모노 듀란드

대대로 루렌 왕국의 육군 장군을 지낸 듀란드의 후계자 모노 듀란드. 왕립 사관학교의 생도인 그는 아마도 조상과 비슷한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칼 듀란드의 죽음은 모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지 1000만 골(화폐 단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빚 뿐이었다. 이를 갚을 수 없었던 모노는 세계 은행에 모든 것을 차압당하고 거리로 나왔게 되었던 것이다. 모노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사관학교를 중퇴하고 용병 활동을 시작한다. 치안이 엉망이어서 도적과 반란군으로 들끓는 세상이기에 가장 빠른 돈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사관학교 동기생인(마찬가지로 중퇴한) 제스 아젤과 모노가에 빌려준 자금을 받지 못해 같이 파산할 것을 우려한 고용상인 데루 래프, 또한 아무런 이유없이-모노를 백마의 왕자로 생각하며-따라다니는 소꿉친구 루 도미니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 용병단을 결성하게 된다. 과연 이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아니면 생애 최악의 실수인가?

돈을 벌기 위해 용병의 길을 걷는다

「하이 리워드」는 고소득(High Reward)을 추구하는 게임이다. 6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용병단을 적절히 이동시켜, 다양한 운송 업무와 군사 활동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집단의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활동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운송 업무, 도시의 내구력을 상승시키는 건축업, 지역을 점령한 도적이나 반란군을 무찌르는 군사 업무 등 다양하다. 용병에는 병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있고(데루 래프 무장상인단?), 무희나 가수가 있다(디스렛 무용단). 또한 일꾼이나 악사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매달 7, 14, 21, 28일에는 번 돈으로 빚을 갚는 날로, 세계 은행의 직원 레지파르스가 빚을 받기 위해 온다. 여기서 최소한 5000골의 빚을 갚아야 한다. 물론 빨리 갚아버리면 좋겠지만 초반에는 돈이 없다. 만일 돈이 없다면 일단 버틴다. 레지파르스의 가디언들과 싸워 이긴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좋다.



레지파르스에게 대항한다.

그러나 레지파르스는 다음 번에 더욱 막강한 부대를 이끌고 오므로 무작정 버틸 수는 없다. 결국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한다. 만일 빚을 갚을 돈이 없다면 10만골의 빚이 더 늘어난다. 게다가 돈이 필요한 곳이 또 있다. 용병 집단을 고용하면 그들에게도 급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매달 1일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지출된다.

게임 화면 설명

주 화면은 각 나라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어떤 나라를 선택했을 때, 그 지도를 중심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제라드국에서 시작한다(여기가 가장 쉽고 적도 약하며, 돈도 조금밖에 못버는 지역이다). 화면 중심에 보이는 것이 제라드의 지도이다. 중간중간에 도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위에 파란색 삼각형이 있는 지역이 현재 용병단이 있는 곳이다. 이 도시를 클릭하면 다양한 명령이 나온다.





● 국가 지도

현재 선택된 국가의 지도를 보여준다. 지도 위에는 도시, 성, 요새 등 다양한 것이 보이며, 때로는 동굴 같은 것이 있는 경우도 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은 적이 점령한 지역이다. 이곳으로 이동하면 공격할 수 있다.

● 세계 축소 지도

전체 지도를 작게 표시해 주며, 현재 화면에 보이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보여 준다.

● 시계

시계와 날짜에 주의한다. 적어도 수금원이 오는 날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계의 모양을 잘 살펴보고 운송 업무를 맡기 전에는 반드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때때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업무를 맡자마자 시간이 다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세계 지도 선택

이동 명령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다른 나라의 지도에서 이동할 장소를 표시한다. 또한 그냥 선택하면 다른 나라 지도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세계 지도에서 보여지는 빨간 깃발은 그 나라에 반란군 등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 부대 선택

전체 부대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명령을 내린다. 자동적으로 그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지도가 바뀌므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부대에 명령을 내릴때 편하다.

● 시스템

게임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또는 게임 설정을 다시할 때 쓰는 명령이다. 일시 정지도 여기에 있지만, 그 보다는 <Pause>키를 누르는 것이 편하다.

● 재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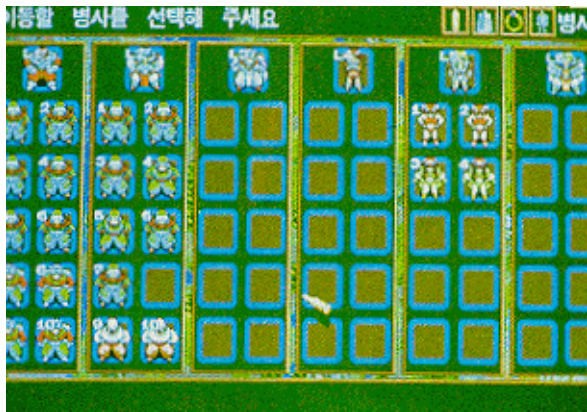
남은 빛과 최소한 값아야 할 양(5000골)과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표시된다. 물론 빛이 0이 되는 순간 게임은 종료한다.

지역 명령

부대가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몇 개의 명령이 나온다(부대가 없는 장소에서는 단지 그 지역의 정보만 표시해 줄뿐이다).

● 부대편성

그 지역에 있는 부대끼리 대원을 바꾸거나, 아이템, 무기 등을 교환한다. 물론 대장은 바꿀 수 없으며 편성 화면 오른쪽에 있는 4개의 아이콘이 각각 무기, 방어구, 아이템, 대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



부대 편성

◎ 무기편성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교환한다. 물론 무기에는 전차, 대포, 항공기가 있으며 각각 아이콘으로 선택해 줄 수 있다.

◎ 거점 정보 표시

현재 있는 지역의 정보를 표시해 준다. 표시되는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의 내구력, 경제력 등의 수치이다. 비행장이 있는지의 여부도 표시된다. 비행장은 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대 명령

부대에 대한 지시를 선택하면 또다른 메뉴가 나온다. 물론 부대에 내릴 수 있는 지시는 도시나 요새에 있을 때와 도로 상에 있을 때가 다르다.

◎ 이동

어떤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으며 물이나 산으로 막혀있지 않은 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 전차나 항공기가 있다면 운송 수단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속도가 빨라 도움이 된다. 전차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항공기는 비행장이 있는 곳 사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이동 중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 항공기는 이동하는 도중 적을 만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비행장을 경유하여 이동하면 매우 편한 여행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동 도중 적을 만나 전투를 벌이다 퇴각하면 처음 출발한 장소로 돌아온다.

◎ 체재

도시, 요새, 성 또는 동굴이나 나룻터 등 특정 장소에 멈추어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도시나 성같은 지역에서의 체재 명령은 매우 중요하다.

◎ 보고

현재 부대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 각 인물의 능력치와 부대에 있는 무기 등의 상태를 보고한다.

◎ 대열

부대의 대열을 정한다. 대열은 모두 16가지가 있으며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부대원간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이템, 무기 등을 교환할 수 있다.

◎ 정찰

연기 능력이 있는 대원을 가진 부대만 내릴 수 있는 명령. 무희, 가수 또는 악사 등의 대원이 연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대장 중 티스렛 카델도 연기 능력이 있다. 적이 점령한 지역에 잠입하여 정보를

알아낸다. 정찰 부대는 이동 중 적과 만나지 않으며 잠입 후 들킬 가능성은 있다. 정찰 명령을 내린 후에는 퇴각 외의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별로 필요한 명령은 아니다. 만일 부대가 적이 점령한 위치로 이동하면 공격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요새처럼 방비가 되어 있어 먼저 방어를 낮춘 후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공격할 때 다양한 공격 방법(백병전, 포격, 전차포)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이동 중 부대를 선택하면 휴식, 대기 등의 명령이 나타난다. 휴식은 그 자리에서 휴식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기는 단지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말한다. 대기나 휴식을 선택했을 때 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정보 및 장소

도시, 성과 같은 지역에 체재하면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교역상

도시, 성에만 존재하며 요새에는 없다. 교역상은 일종의 시장으로 상업력이 있는 대원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또한 전체 상업력이 높을수록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각 지역에 따라 물건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단지 이 게임에서는 재고량이라는 것이 있으며, 물건을 판매한 지역에서는 금방 물건이 생기지 않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역을 해야 한다.

◎ 건축

지역의 내구력을 높이는 활동. 이 명령으로 건설을 하면 돈을 벌 수 없다. 군사 임무 중 이와 같은 명령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도록.

◎ 상점

다양한 상점이 존재하며 지역에 따라 다른 상점이 있다. 요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점에는 매우 많은 물품이 있어 돈만 충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소 : 용병(또는 무희나 상인 등)을 고용하는 장소. 매우 다양한 대원들이 존재한다. 같은 종류의 용병이라도 가격이 다른 경우는 레벨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초반에는 병사라도 충분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각총병이나 총사 등의 강력한 부대를 고용해야 할 것이다. 무기상 : 공격 무기를 판매한다. 역시 지역에 따라 파는 물건이 다르며 값이 비싼 것이 우수하다. 무기의 종류는 권총, 총, 기총, 중기총의 4가지가 있으며 대원에 따라 사용 무기의 제약이 있다(무희는 권총만 사용 가능). 기총과 중기총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기총은 속도가 빠르나 중기총에 비해 공격력은 낮다). 일반적으로 적을 많이 맞출수록 경험치가 늘어나므로 레벨을 빨리 높이려면 기총을 쓰는 것이 좋다.

* 방어구 : 각종 갑옷류를 판매한다. 방어구도 계열이 있으며 대원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장비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 약국 : 회복약을 판매한다. 회복약은 전투 중 자동적으로 사용되므로 한 번 구입해 두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전투 대원은 회복약을 구입해 두는 것이 좋다. 회복약은 한 사람이 최대 5개를 가질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가급적 대원의 최고 생명력에 맞추어 구입하는 것이 좋다(각총병 같은 부대는 벨르크 4를 구입해 주어야만 한다).

* 도구점 : 무희, 상인, 일꾼 등 특정한 대원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 도구는 약과 도구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만일 공연이나 상업 등에 치중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투를 위주로 한다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희에게 제공하는 장신구나 드레스, 상인용의 도구나 일꾼의 장비 등이 존재한다. 대포점 : 공성용의 대포를 판매한다. 대포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무기로 공성전시 효과가 매우 크지만, 적의 공격을 받으면 대원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는 단점이 있다. 포병을 고용해 두면 대포의 효과가 높아진다.

* 전차점 : 각종 전차를 판매한다. 전차는 이동시에 도움을 주며 공성전을 할 때 전차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적의 포격이나 공격을 받을 때 대원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전차병을 고용해 두면 전차의 공격 효과가 높아지며 피해가 줄어든다.

* 항공기점 : 항공기를 판매한다. 몇몇 지역에서만 판매하며 항공기는 공중으로 이동하여 적을 만나지 않게 해주고(때때로 있는 포격을 제외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적다. 또한 공성전시 적을 폭격할 수도 있다. 단, 비행장이 없는 지역끼리는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 최대 단점. 조종사를 고용해 두면 폭격의 효과가 높아지며 피해가 줄어든다. 하지만 사실상 공성전시 항공기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조종사는 별 필요없다.



항공기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 술집

술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듣거나 이벤트를 만나기 좋은 장소이다. 소문을 듣는 명령은 때때로 중요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게임을 하는데 조언을 준다. 그 밖에 현재 모든 부대가 알고 있는 군사 임무나 민사 임무를 살펴볼 수 있으며 대원 전체의 금료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무희 등의 공연단이 있으면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단, 공연을 할 때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원이 필요하며, 실패하면 도리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가급적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술집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술집에서는 정보를 얻는다.

◎ 병원

피해를 입은 병사를 치유한다. 피해에 따라 가격이 틀리며 모든 대원의 생명력이 최대로 채워진다.

◎ 민사 게시판

각종 운송의 민사 업무를 맡게 된다. 다양한 가격과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때로는 시간 안에 도착하면 두 배의 돈을 주는 임무도 있다. 민사 게시판에서 나왔다가 다시 선택하면 종류가 바뀌므로 비교적 좋은 임무로 선택하도록. 때때로 이벤트와 관련된 민사도 있으며 이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 군사 게시판

지역 점령, 건축 등의 일이 있으며 비교적 고수익을 제공한다. 군사 임무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 두 부대를 집중적으로 키운다

「하이 리워드」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1000만골의 빚을 진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다. 부대는

모두 6개. 각 부대마다 대장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주인공 모노이다. 각 인물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자. 플레이어는 각 부대를 적절한 임무에 활용하여 한다. 초반에는 각 부대에 부대가 조금씩만 있다. 이런 작은 부대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처음에는 한 두 부대에 집중하여 키우도록 하자. 주로 듀란드 용병대나 제스 용병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대간 편성'을 선택하여 다른 부대의 대원을 이동시키면 된다. 그 후 제라드성에서 간단한 임무부터 시작한다. 보통 민사 임무 중 물건 이동의 임무들이 가장 편할 것이다. 먼 곳에 갈수록 많은 돈을 받겠지만 그렇게 되면 적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 초기에는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 업무를 살펴보고 가급적 좋은 일만을 맡도록 하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일꾼이 배치되어 있는 볼테츠 총병단이다. 도시의 건축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자. 위험성은 거의 없으며(아주 드물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함)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주로 제라드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맡는다. 한 장소에서 계속 반복해도 되지만 오래 할수록 받는 돈도 줄어든다. 램프 무장 상인단은 초반에는 병력이 없어 어렵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도움이 된다. 서제라드와 제라드성을 이동하며 약간의 가격차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재고라는 것이 있어 오랫동안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초반에는 돈이 적기에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제대로만 하면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예를 들면 제라드성의 크리스탈과 렌즈, 와인 등은 서제라드에 비해 값이 싸며 서제라드에서는 만도린, 암염, 나침반, 건어물, 쇠고기 등이 약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다). 물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다면 상인은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된다. 때로는 1000골 이상의 가격차가 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대대적인 교역 활동을 추구한다.

병사와 무기 구입에 투자하자

공연은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면 도리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초반에 없는 자본을 바닥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러한 일을 시작하면 안된다. 일단 돈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장신구, 드레스 등을 구입하여 연기력을 높인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대로만 성공하면 만단위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대신 공연은 초기에 버는 돈과 차후에 버는 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그다지 권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초반에는 제라드, 파시스로 진출한다. 파시스까지 보병만으로 진행해도 된다. 단, 장비는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레벨이 빨리 늘도록 기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약은 충분히 구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벌어들인 자본은 병사에게 투자하자. 되도록이면 무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병사는 언젠가 바꾸어야 하지만 병사가 바뀌어도 무기는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항공기를 구입하게 되면 파난성까지 날아가 각총병을 고용하여 사용하자.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어렵겠지만 병사를 키워서 쓰기 보다는 초반부터 각총병을 고용하여 쓰는 것이 좋다. 각총병은 본격적인 국외 진출을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부대이며, 설사 방어구가 없다해도 웬만한 병사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구입이 필수인 상인단

데를 램프 무장 상인단은 항상 활발히 뛰어야 하는 부대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다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쪽으로는 브라키아에서, 서쪽으로는 루엔까지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역을 할 수 있다. 물론 현지의 동향을 잘 알아야 한다. 물건 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비슷한 물가를 가지고 있으며, 제라드와 파시스도 거의 유사하다. 비슷한 지역의 물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끝에서 끝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상인단은 반드시 항공기를 구입해야 한다. 날아다니므로써 전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다. 단, 한 장소에서만 반복할 수는 없으므로 약간의 부대는 배치해 두자. 강력한 각총병을 배치하고 파워바 같은 대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자. 상인에게는 약을 주지 말고 상업용 도구를 주는 것이 훨씬 좋다. 또한 많은 상인이 있을수록 영향력도 크다.

황금알을 낳는 무역의 요지

무역에 좋은 몇 군데의 경로가 있다. 우선 서제라드(또는 에메레디아 해상도시 등)와 브라키아국의 교역은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브라키아국과 레즈니악은 가격이 비슷하므로 서쪽의 국가와 중앙의 제라드와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유용한 화물은 서제라드의 암염, 크르차잎, 나침반,

쇠고기 따위이며, 브라키아나 레즈니악에서는 특히 발전기의 값이 싸다. 그리고 철광이나 크리스탈, 렌즈 등도 좋다. 북쪽과는 가장 가까운 세라페부터 실시해도 좋다. 가까운 거리이지만 상당수의 제품이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장거리 무역으로는 루렌에서 발전기를 구입해다 서제라드쪽에 판매하는 것이 좋다. 개당 1000골이라는 엄청난 돈을 남길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 경로에서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고 물량은 순식간에 바닥나고(아니 한 번에 바닥난다) 금방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간의 무역을 계속 옮겨가면서 실시해 보자. 자본금도 많아야 한다. 충분한 돈을 들어 무역을 하면 단번에 10만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루렌 같은 먼 곳에서 적의 거점을 격파하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고, 계속 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승패를 결정짓는 적절한 대형한 충분한 준비

전투는 자동적으로 진행돼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 부대의 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때로는 상인이나 무희들을 보호하며 싸워야 하고, 적이 강력한 경우 고전하기 쉽다.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적절한 대형이며 또 하나는 충분한 준비이다. 먼저 약을 가득 채워두는 것을 잊지말도록. 전투 중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약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항상 생명력의 최대치에 맞추어 약을 구입해 둘 필요가 있다. 뛰어난 방어구와 무기의 구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무기는 가급적 레벨을 높이기 위해 기총류를 구입해 둔다. 적을 쏠 때마다 경험치가 늘어나므로 많이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대형은 최대 16가지이지만, 필요한 것은 몇개 되지 않는다. 사일런트 나이트같은 무의미한 대형이나, 아이솔레이션같은 위험한 대형은 아예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솔레이션은 원래 강한 사람 1명으로 나머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제작된 대형이지만, 적을 빨리 쳐부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된다. 대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맞다는 점이다. 즉 눈에 잘 띄어 표적이 되기 쉽다. 다음으로 바로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맞지 않는다(앞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격은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공격형으로 추천하고 싶은 대형은 와이프 아웃과 파이어 커튼이다. 와이프 아웃은 9명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두 번째 열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9명이 적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적을 보고 있어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 이 대형은 최소한 9명이 우수한 전투력을 가져야 하므로 전투 대원 위주의 용병단에 적합하다. 후방에는 전차병같은 대원을 배치해 두면 된다. 파이어 커튼은 앞 2열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어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전방의 5명을 제외하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따라서 전투 대원 5명을 갖추고 있는 부대에 알맞으며 후방에는 무희, 상인들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두 가지 대형은 모두 공격에 적극 가담하므로 모든 대원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한 적은 전투 대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상인단이나 무용단으로서 대부분 비전투원(물론 상인이나 무희도 전투는 할 수 있지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대형으로 알맞는 것은 파워 바이다. 앞의 3명을 제외하면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는 대형으로 후방의 인물들은 매우 안전한 입장이다. 단, 앞의 3명을 제외하면 뒤의 사람들은 레벨이 늘어나는 느낌이 거의 없다. 전방의 3명은 람보가 되어 후방의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개의 경우 정해진 위치에서 일어난다.

■ 유명한 무희의 호송

에메레디아 해상 도시의 술집에서 만난 무희를 파시스의 네데레이아까지 호송하는 임무. 네데레이아에 처음 진출하는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로, 시간 제한은 없다. 엄청난 거금을 벌 수 있다. 무희를 대원 중 하나로 편입시켜 이동시켜야 한다. 유명한 무희는 매우 악한 인물이므로 파이어 커튼이나 와이프 아웃의 후방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자 (레벨을 키우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라리 포기하는게 나을 정도이다). 네데레이아에 도착하면 나쁜 놈(?)이 나타나 무희를 빼앗아가려 한다. 여기서 나쁜 놈의 부대를 격파하면 무희는 정식 동료로 들어온다. 유명한 무희는 연 기력이 30으로 가장 높아 공연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또한 앞으로의 이벤트에 필요하기도 하다).

■ 미디리티의 세탁물

파시스의 리카노니시에서 민사 임무를 살펴보면 등장한다. 내용은 금남의 도시인 미디리티에 세탁물을 전해주는 것이다. 상금이 있다 하며 여성만의 부대를 편성해야 한다. 세탁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 역시 나쁜 놈이 나타나는데 물리치도록 하자.

■ 다라광 전차의 비밀

라자크스에 진출한 직후에 등장하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라자크스 남부의 페리미에도아시에서 술집에 들어가면 술주정꾼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후 이상한 전차점이 발견된다. 여기에 있는 전차는 고대의 유물로서 최강의 전차이다(또한 1대만 등장한다). 문제는 이 전차에 저주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전차를 구입하면 그후 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생명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전차점 주인에게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랍시고 다른 마을의 과학자를 만나라고 할 뿐이다. 이때 다른 동료가 이동하여 라자크스 서부의 카디아 크멜시에 가야 한다. 과학자를 만나면 몇 가지 헛소리를 하다가 안드로이드를 준다. 그를 다라광 전차를 가지고 있는 부대에 대원으로 편성하도록 하자. 그러면 문제없이 움직인 다. 이 안드로이드(전자동 무희)는 각종병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며 모든 장비를 가질 수 있다.

■ 파난성의 총술 대회

매년 3월, 9월에 펼쳐지는 대회로 1일부터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대회에 우승하면 트로피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벤트와 관계가 있다. 우승한 이후 다음 대회 때 가면 원래 그런 것이라며 트로피를 도로 빼앗아 버린다. 추가로 총술 대회와 관련하여 도박 이벤트도 있다. 즉 참여하는 8개 부대 중에서 우승자를 예상하는 것이다.



총술 대회는 시작되었다.

■ 바이어런스의 공주

가장 복잡한 이벤트이며 가장 화려한 이벤트. 바이어런스를 보호하는 임무이다. 파난성의 총술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는 전개가 달라지지만 결국 바이어런스를 도와 적을 물리치는 이벤트이다. 라자크스의 카디아 크델시에서 술집에 가면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단, 듀란드 본인이 가야 한다) 바로 그 소녀가 바이어런스의 공주이다. 공주의 말에 따라 바이어런스성으로 가면 그녀를 만나서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본격적인 전투가 준비된다. 싸워야 할 나라는 최소 둘. 먼저 쳐들어 온 북방의 레즈니아크를 무찌르고 나면 그것이 레즈니아크의 공주를 납치한 다른 나라의 흥계라는 것이 밝혀진다. 남방의 브라키아나 라자크스 중의 하나로서 이를 물리치면 모든 이벤트가 끝난다. 그리고 바이어런스의 필메이어 공주가 동료가 되기도 한다.

■ 어슈워드의 영주

어슈워드 왕의 신부감을 찾는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이벤트는, 어슈워드국의 바타난시에 있는 민사 업무를 맡으면 시작된다. 어슈워드의 영주를 만나 말을 듣게 되는데, 만일 루 도미니나 티스렛 카델이 가게 되면 자신의 신부감이라며 공격해 온다(여기서 패하면 사로 잡히고, 다른 사람들이 구출하러 들어간다). 물리치면 시종에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 아레임의 과학자

아레임 성에 들어가 보면 날씨가 추워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또는 더워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아레임의 왕을 만나면 추워 죽겠다며 썰렁한 농담을 하며 더워 죽겠다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지루한 농담을 한다. 여하튼 그 후 과학자가 있는 동굴을 알려주므로 거기에 가서 과학자를 만난다. 과학자는 옆의 루렌국, 란지아시에 있는 친구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친구로부터 부품을 받아오면 된다(친구는 과학자가 아무 일도 안한다는 말에 정말 다행이라는...).

■ 세제 배달

브라키아국의 할 브라키아시의 민사 업무. 파시스의 리카노니시로 배달한다. 그러나 배달한 세탁소는 문을 닫았기에 통과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세제와 상자를 바꾸자고 하는데 바꾼다. 이 상자는 고대의 신비한 유물의 하나로서 루렌국의 영주가 열심히 찾는 물건이다. 그에게 가져다 주면 500만 골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을 직접 찾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제 배달 업무는 루 도미니나 티스렛 카델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상자를 가지고 파난성의 학자에게 찾아가면 4명의 질문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남쪽의 교주이다. 파시스의 미디티리 성채 도시에 들어가(여자여야 한다) 미디티리를 만나면 교주에게 보내 준다. 여기서 유명한 무회를 동료로 데리고 있어야만 하나의 상자를 줄 것이다. 그 다음은 서쪽 폐성의 왕이다. 구제라드의 왕을 말하는 것이며, 바이어런스의 공주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므로 아무 부대나 이동하면 된다. 북쪽의 장군은 아레임 쪽에 있다. 일단 다난시로 가서 술집에 들어가 소문을 묻자. 그러면 술주정꾼이 나타나 옆의 요새로 보내줄 것이다(돈 1000골이나 받으며). 그 요새에 있는 북쪽의 장군을 만나면 된다. 여기서 총술 대회의 트로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쪽에는 학자가 있는데, 레즈니아크에 있는 하아디의 동굴에 있다. 그에게는 다라광 전차를 보여주어야 한다(그리고 다라광 전차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든 상자를 모으고 다시 파난의 학자에게 가면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준다. 이러한 수수께끼를 푼 후 도착한 동굴에는 1000만골이... 이러한 이벤트는 몇 개가 더 있다.





모든 빚을 다 갚고 한자리에 모인 용병들

분석을 마치면서

지겹도록(?) 오래된 게임이었다. 매우 간단한 체계에 다양한 내용들이 1000만골이라는 거금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우에도 15만 정도였기에(이벤트를 제외하고), 사실 1000만골을 버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재미있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게임이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매우 오랜 시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랄까? 적어도 억지로 엔딩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스템 또한 상당히 좋았다. 특히 각 이벤트에 있어 인물마다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세심한 배려라 생각한다. 한 번쯤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장르	시뮬레이션				
제작	이미지니어/KCT				
사운드	★	★	★	★	
그래픽	★	★	★	★	
난이도	★	★	★	★	

가격 : 3만5천2백원

자료협조 : 오렌지 소프트(☎ 703-9872~3)

이션!!_

